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08.25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K-pop R&R. 운명을 개척한 스트레이 키즈의 세레모니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
■ 스트레이 키즈(Stray Kids) 정규 4집 <KARMA>, 타이틀곡 'CEREMONY' 공개

- Stray Kids 정규 4집 <KARMA>는 8/22 발매 1일차 판매량 208만장 기록. 6개 앨범 연속 초동 밀리언셀러 달성
- 이번 음반도 그룹 내 프로듀싱 팀 '3RACHA'(방찬, 창빈, 한)가 앨범 전곡 작사, 작곡으로 자체 프로듀싱
- 이전 음반 성과는 정규 3집(23년 6월) <5-STAR> 초동 461만장, 스페셜 앨범(24년 12월) <HOP> 초동 181만장
- Stray Kids는 22년 <ODDINARY>부터 직전 앨범 24년 <HOP>까지 6개 앨범 연속 빌보드 200 차트 1위 기록
- Stray Kids의 스포티파이 월간청취자 수는 8/24 기준 1,118만명(+2.51% MoM)으로 음원 성과도 기대
- JYP는 KARMA 팝업 스토어, 스포티파이는 Stray Kids 팬덤 'STAY'를 위한 팝업 Spotify STAYdium 운영 중

■ JYP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주역 스트레이 키즈. 재계약 후 활동 규모 확대로 수익 기여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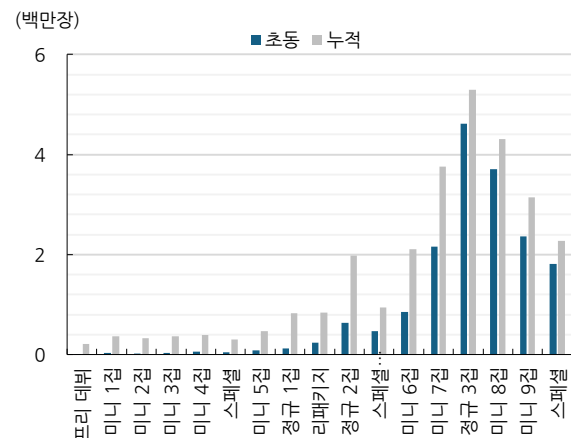
- Stray Kids는 2018년 3월 데뷔 후 7년차인 24년 7월 전원 JYP와 조기 재계약. 재계약 후 음반, 공연 성과 확대
- 특히 Stray Kids 3번째 월드 투어 <dominATE>(24.08~25.07)는 아시아, 미주, 유럽 등 34개 도시, 54회 공연 진행
- 70% 이상 스타디움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공연 모객수는 220만명으로 K-pop 역대 최다 기록 달성
- 재계약으로 인한 원가율 증가에도 공연 규모 확대, 음반/음원, MD 등 소속사 JYP에 기여하는 실적 증가
- 실제로 JYP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529억원(+466% YoY, OPM 24.5%)으로 Stray Kids 공연 북미 초과 수익 기여

그림1 Stray Kids의 정규 4집 <KARMA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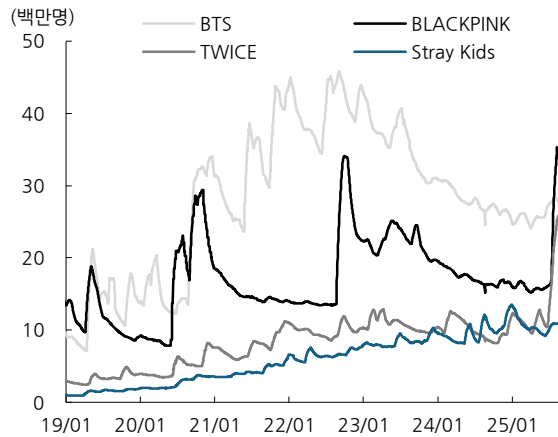
자료: JYP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Stray Kids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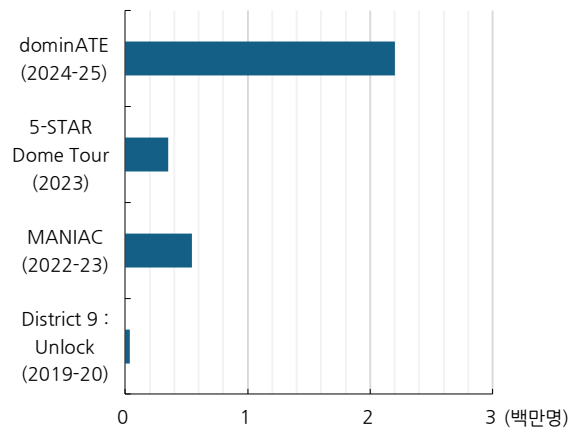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주요 K-pop 아티스트의 Spotify 월간청취자 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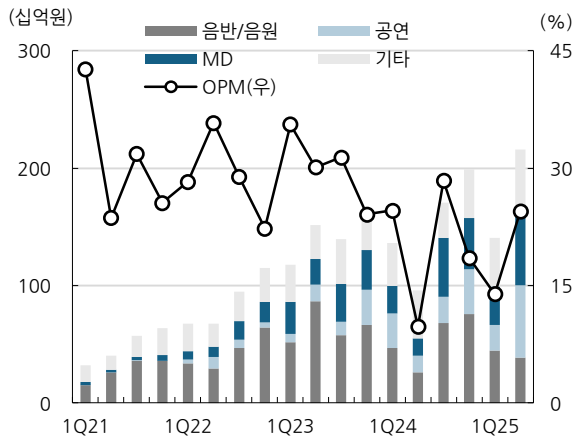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Stray Kids의 공연 규모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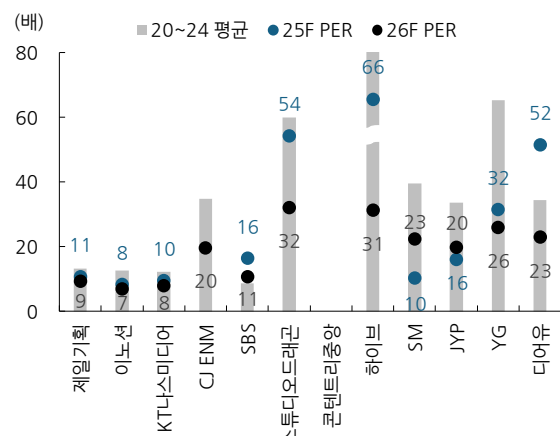
자료: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5 JYP 분기 연결 실적 추이



자료: JYP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